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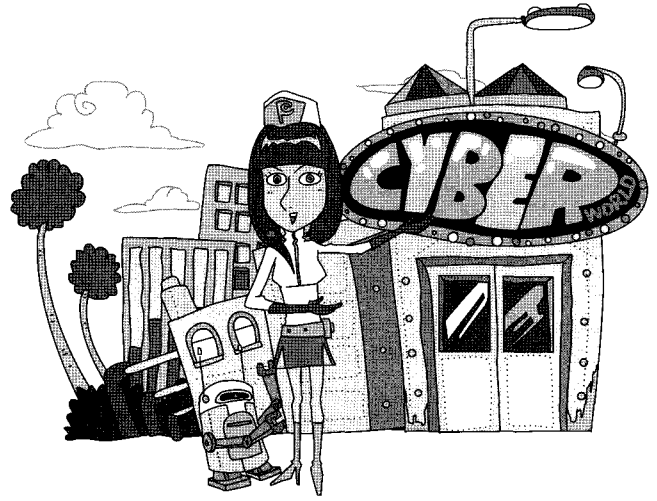
## 가상현실 사이버섹스 자판기가 나온다면?

원래 상상은 무한대이다. 현실가능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세상을 바꾸고 혁신을 가져온 사람들 중에는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을 잘하는 사람, 즉 몽상가 스타일이 많다. 세기의 천재라 일컫는 미켈란젤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등등. 또 얼마전 세상을 떠난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해당이 된다. 그가 최초로 만든 스마트폰도 불과 10년여 전만해도 한낱 몽상에 불과했다. 무한상상은 이런 점에서 가치가 크다. 세상을 뒤바꿀 지극히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다. 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펼쳐질 황당한 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가상현실 사이버섹스자판기라니? 밥 먹고 쓸데없는 상상을 한다고? 어쨌든 상관없다. 난 필(feel)이 꽃혔으니까. 막지마라. 나는 상상한다. 고로 존재하니까.

(에디터: 심광)

### 상상 워밍업! 세상을 바꿀 자판기들

나는 자칭 자판기 전략 기획 전문가이다. 미래에 자판기로 돈을 벌만한 아이템이 쟁고 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자판기는 단순히 어떠한 물품을 무인으로 판매하는 수준의 자판기가 아니다. 기존 전문가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기계가 대체하는 수준까지를 포함한다. 예컨대 자동커피자판기가 있다.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해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머리를 깎아주고 세면까지 해준다. 안마기능은 서비스로 제공된다. 그리고 기계가 한마디 한다. "오빠! 팁 좀 줘." 또 떡거리 중에는 제과점을 대체하는 제빵자판기도 있다. 버튼만 누르면 기계 안에서 자동 제빵과정을 통해 샌드위치 및 빵이 만들어져 판매가 된다. 미용분야를 겨냥한 진짜 대박 날만한 아이디어도 있다. 바로 자동화장자판기이다. 자판기 안에서 피부에 맞는 명품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이 '똑딱'되어 삼순이 스타일도 '뷰티풀 걸'로 변화시켜준다. 여성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 자판기이다.



사이버와 가상현실이 결합되어 최근 추세로 볼 때 당장이라도 여건만 되면 사업화해보고 싶은 자판기도 있다. 일명 사이버 관광자판기이다. 구지 먼 해외여행을 갈필요가 없이 해외의 유명 관광지를 실경과 다름없이 화질로 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현지에서처럼 걸어가면서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인데 자판기 내에 '워킹 기능'을 넣어 실제관광과 흡사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야 현실 못지않은 여행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또 운동도 되고, 더 세상을 쇼킹하게 만들 자판기도 있다. 나는 미래 언젠가는 가상현실 사이버 섹스자판기가 반드시 나오리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헉! 황당무계하다고? 상상 속 자판기는 개발비도 안 드는데, 뭐 어때!

### 상상 스킨 쉽! 가상현실 속 사이버섹스 자판기

사이버 섹스란 남녀가 서로 육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공간 속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사이버 애인의 장점은 미모와 섹시한 몸매만이 아니라 싫증나면 컴퓨터를 꺼버리면 간단히 떼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골라 섹스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사이버 섹스와 관련한 연구는 실제 일부 국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뇌와 근육으로부터 전기신호를 받아 신시사이저를 제어하는 '바이오뮤즈(Bernuse)'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가상현실 기술과 조합돼 영화 '데몰리션 맨' 수준에 버금가는 사이버 섹스 시스템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993년에 나온 영화 '데몰리션 맨'에서 실베스터 스탤론과 샌드라 블레이크이 헤드기어를 착용한 채 사이버 섹스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화에서

는 쾌락을 교환하는 섹스는 비위생적이어서 법으로 금지됐다. 주인공들은 사이버 섹스를 하는데 이를 위해 착용하는 헤드기어가 알파( $\alpha$ )파를 증대시켜주고 성에너지를 디지털 화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이버 섹스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사람과 사람이 섹스를 나누는 것만큼의 쾌감을 대체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든다. 관건은 여기에 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섹스만큼 보고 만지고, 느끼고, 사정하는 쾌감을 사이버 섹스가 대체 가능할까?

현재로 상상해 볼만한 방법은 가상현실 체험복을 입혀 사타구니 성감을 자극한다거나 정밀한 촉각장치로 인간과 인간이 접촉하는 느낌을 구현해 내는 방법이 있을게다. 방법 역시 무한대의 영역이다. 첨단 과학을 이용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실제 섹스 버금가는 가상현실 사이버섹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

사실 실제 섹스에 있어서도 접촉으로 인한 성적 쾌감은 10%에 불과하다는 이론들이 있다. 우리가 느끼는 나머지 90%의 쾌감은 이미지와 상상을 통해 대뇌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이버 섹스가 한낱 상상에 불과한 산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상상 클라이막스! 남녀 사랑과 유혹의 변화는

가상현실 사이버 섹스자판기가 나온다면 남녀 간의 만남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무한상상의 나래를 더욱 확대해 보자. 사람들은 가상현실 속에서도 성적 쾌감을 주는 사이버섹스에 열광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자판기 식으로 일정 돈만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미남/미녀를 골라 가상에서 즐기는 섹스는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욕망까지 해소시킨다. 예를 들어 할리우드의 섹스심벌 스칼렛 요한슨과의 사이버 섹스도 가능하다. 이런 시대가 열린다면 아마 현재처럼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욕망하고 매혹시키고자하는 열정이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남성이 여성에 그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도 성적인 욕망이 근저한다. 시각을 중시하는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예쁘고 매력적인 몸매의 여자를 갈구한다. 여자들은 멋진 남성, 능력 있는 남성과 땀어지지 위해 예쁘고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려 한다.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성형은 놀라운 발전을 이어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실 속의 여성을 향하던 남자의 관심이 사이버 상으로 많이 옮겨 가 버렸다. 남자와 여자라는 사랑과

유혹의 절대적인 두 개체 사이에 사이버가 딱하니 등장해 희망을 놓는 판이다. 사이버의 매력이 즉시적인 욕망의 해소 차원에서 보면 더욱 강력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는 동기 유발 요인도 떨어지지 않을까? 남성들은 과거보다는 여성을 뜨거운 갈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현실 속의 이성에 대한 관심의 일정 부분은 사이버, 즉 가상 세계로 가 있다. 여성들은 줄어든 남성의 관심에 외모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고 자연 성형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 성형업계 입장에서는 발끈하게 만드는 무한상상이 아닐 수 없다. 그 지탄의 목소리가 두려우니 다른 상상도 해보자. 사이버섹스의 열풍으로 남자와 여자의 직접적인 만남의 가치가 반감되는 시대에 여성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남자들의 사이버를 통해 눈높이만 잔뜩 높아졌다. 성형외과는 외부 환경악재에 따라 놀라운 성형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게 된다. 여성들은 과거 보다 엄청 예뻐지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더욱 성형에 매달리게 된다. 성형은 한 번의 위기를 넘어 다시 전성기를 맞는다. 거의 얼굴을 언제 어느 때고 마음껏 바꿀 수 있는 '페이스오프' 수준의 시대가 열린다.

### 상상 반전! 성형수술자판기마저 나온다면

사실 성형외과 분야에 있어서는 가상현실 사이버 섹스자판기가 나오지 않는 게 훨씬 낫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는 모를 일이다. 더욱 쇼킹하게 할 무한상상도 준비되어 있다. 아예 성형 분야의 생존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괴물하나. 바로 성형수술자판기이다. 큰 수술을 자동기계가 해줄 수는 없겠지만 1년 동안 유지되는 비절개법 쌍꺼풀 수술, 3개월 동안 콧날을 바꿀 수 있는 수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간단한 성형수술 등은 자판기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판기 성형수술로도 예뻐질 수 있는 시대. 벌써부터 사방에서 들려온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 누구 알겠는가? 신도 모르는 게 미래의 일이다. 획! 더 이상의 무한상상은 이제 멈추어야겠다. 싸늘한 시선이 느껴진다. 더 나가면 미친X 소리 듣기 십상이다. 무료한 날, 한 몽상가의 엉뚱한 상상 살짝 엿보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되고, 내가 도전하면 성취가 된다."**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